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순천시 지역사회중심 재활협의체 간담회 개최

기관 연계 재활방문프로그램 상호 협력 통합서비스 제공

순천시 보건소에서는 지난 9일 순천시, 순천의료원, 순천생협요양병원, 순천선혜학교,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

관등 관내 5개 기관이 중심이 된 지역사회중심 재활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순천시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학교 등 지역사회와의 인적·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재활촉진과 사회참여를 도모

하는 사업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거동불능 재가 장애인을 순천생협요양병원의 주치의 사업과 보건소 방문재활프로그램을 연계 한다는 것. 따라서 순천의료원까지 협업체 망문하기로 하는 등 기관 간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 통합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의했다. 심기섭 순천시 건강증진과장은 "지

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다수의 시민들에게 제공되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을 촉진하는 사회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T061-749-6919)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장성 누리타운 100일

실버복지 '새 지평' 열었다



장성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이 준공 100일을 맞았다. 올해 3월 광주·전남권 최초로 장성군에 준공된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영구임대 형식으로 제공되는 복지주택이다. 임대료는 월 3~5만원, 5~7만 원 선으로 법정최저 수준이다. 노인복지에 있어서 정책이나 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다. 장성군은 누리타운 내에 사회복지관을 개관해 세대별 심층상담을 비롯한 각종 노인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취미·여가교

실, 건강증진실, 찜질방, 경로식당(평일 중식) 등을 타운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바로 '열 건물'인 보건소와 연계해 건강 체크 서비스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주거와 복지, 보건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원 스톱(one-stop) 시스템을 갖춘 것은 누리타운만의 독보적인 장점이다.

▲어르신들 만족도 높아... 호평 일색

누리타운은 건설 단계에서부터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어르신들의 노

후생활에 건강함을 더했다. 또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에는 수압식 세면대 높이 조절장치와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누리타운에 입주한 어르신들로부터 "삶의 질이 올라보게 향상되었다"는 호평이 이어진다. 누리타운 입주민 김갑용(88세, 남)씨는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해졌다"고 했다. 거동이 불편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김씨는 복도마다 설치되어 있는 손잡이와 고령자의 안전을 고려한 실내 주거 환경에 대해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군 단위 최초', '150세대 확보' 결실 애초에 장성군은 공공실버주택 사업 대상이 아니었다. 사업을 주관하

고 있던 중앙부처에서 최초 사업추진 당시, 신청자격을 일부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유두석 군수는 장성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해 어르신들의 주거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기초자치단체로까지 사업신청 자격을 확대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줄기차게 건의했다. 그 결과 장성군은 군 단위 최초로 공공실버주택 사업대상에 최종 선정됐다. 유 군수의 도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최초 공모 당시 80세대였던 사업량을 약 1.5배 가까이 늘려 150세대를 확보했던 것. 이 역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타 지역 사업에서 남은 '자투리 세대'들을 발 빠르게 끌어 모은 결과다.

▲조용하지만 큰 변화

지난 7월 1일, 민선7기 1주년 기념 행사를 마친 유두석 장성군수가 바쁜 걸음으로 향한 곳은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1층 '경로식당'이었다. 유 군수는 이날 점심, 지역 어르신들의 식판에 순수 국과 밥을 담았다. 유 군수가 민선7기 2년을 누리타운 배식봉사로 시작한 것에 의미가 없을 리 없다. 그는 "군정의 최종 목표는 군민의 행복이며, 장성군민의 행복은 지역 어르신의 행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장년까지만 해도 냉난방조차 여의치 않은 낡은 집에서 생활을 이어가던 어르신들이 지금은 최신 시설을 갖춘 읍내 복지주택에서 안락함을 누리고 있다. 누리타운이 풀고 온 '조용하지만 큰 변화'다. 유 군수는 "장성을 처음 찾으신 분들이 읍 시가지 한복판에 서있는 누리타운의 야경을 보고 '저기 탁트인 도로 앞 고급 아파트'의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신다"면서 "집안의 어르신께 가장 좋은 방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장성군은 앞으로도 어르신의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 발굴,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각장애 안마사 "허위신고로 피해 속출"...수사 촉구

"최근 악의적 112로 영업 피해...생존권 위태" "경찰, 무자격 안마업소 방치...단속해달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최근 영업을 방해하는 악의적인 신고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단속도 촉구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2008년 이후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되는) 안마사 자격과 안마기술 제

도에 대해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정부는 무자격 불법 안마행위자들을 근절하건커녕 솟자 논리에 속아 그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를 상대로 '미성년자가 있다'는 등의 허위 신고가 늘었다면서 "영업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고 나아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조차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 손님들

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소동이 일어나고 이에 손님들이 업소 방문을 꺼리면서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안마사 업주 중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는 내용의 협박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향해 "불법 무자격 마사지 업소를 엄단하고 악의적인 112 신고자들을 조속히 검거해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김용화 대한안마사협회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만 종사할 수 있지만 온 나라 전체가 불법 태국 마사지 천국이 돼있다"며 "그러나 경찰의 단속은 뒷전"이라고 말했



대한안마사협회 등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안마사들 기관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존권 대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다. 이들을 오히려 했고 부러뜨린 형국을 도지러 목과할 수 없다"며 밝혔다. 뉴시스

야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